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연구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Psychological Life Position,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염미애
부교수 문혁준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octoral Student : Yeom, Miae

Associate Professor : Moon, HyukJun

목 차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psychological life position,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The subjects were 267 four and five-year-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from five child 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was assessed by the teacher rating scale developed by Kim(1998) an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assess the maternal psychological life position and involvement in child-rearing. Data was analyzed by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demonstrated a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the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ir gender and age. The strongest predictor of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was the child's age.

주제어(Key Words): 유아정서지능(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심리적 자세(psychological life position), 양육참여도(involvement in child-rearing)

I. 서론

다양한 맥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은 복잡해지고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습득하

고 타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배워간다. 이처럼 한 개인이 사회와 관계를 맺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정서이다.

William James가 '정서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 이래로 심리학에서는 정서의 개념을 규명하려는 다양한

Corresponding Author: Hyukjun Moo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3-1 Yockok 2-dong, Bucheon, 420-743, Korea Tel: 82-2-2164-4486 Fax: 82-2-2164-4485 E-mail: mhjukj@unitel.co.kr

시도가 있어 왔으나(Reisenzein, 1983) 20세기 초까지도 정서는 감정과 동일한 것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다(김경희, 1996). 정서 지능에 대한 관심은 Sternberg(1986)와 Gardner(1983) 등이 지능의 개념을 확장하고 다양화하여 정서 지능의 기초 개념들을 소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Mayer와 Salovey(1990)에 의해 정서 지능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정립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Mayer와 Salovey(1997)는 “정서지능은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사고를 촉진하는 감정에 접근하거나 감정을 생성하는 능력, 정서와 정서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정서적 그리고 지적 성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 수정된 정서 지능의 정의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이영자, 이종숙, 신은수, 1999). Mayer와 Salovey(1997)가 제시하는 정서지능의 영역은 기초 심리학 과정에서부터 심리적으로 좀 더 수준 높은 통합된 과정으로 설명된다. 즉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가장 단순하고 기초적인 능력이고 그 다음 수준이 정서에 의한 사고 촉진 능력이며, 세 번째가 정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정서적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며, 가장 높은 수준이 정서적·지적 성장의 증진을 위하여 정서의 반영적 조절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이영자 외 2인, 1999).

정서지능발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지능의 모든 요인을 함께 연구한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각 하위요인별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도 일치하고 있지 않다. 한편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그 감정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아동의 사회적 행동이나 대인관계와 관련된다면 점에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Hughes, Tingle & Sawin, 1981). 예를 들면,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아동은 충동적이거나 고립되어 있으며(Richard & Dodge, 1982), 비행청소년들은 대인관계 문제해결 기술과 자기평가기술에 결함이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Kendall & Wilcox, 1980; Hains & Ryan, 1983; 김경희, 김경희, 2000 재인용).

정서지능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 연구는 정서 지능의 하위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Mischell(1990)은 4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을 측정하여 15년간 종단 연구를 실시한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 조절 능력과 학업 성취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정서 인식 능력과 감정이입 능력도 학업 성취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Mayer & Geher, 1996; Mayer, Dipaolo & Salovey, 1990). 즉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인식 능력과 감정이입이 높은 사람은 그 능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정서 조절 능력이 발달한다는 연구(Mayer & Salovey, 1996)에서는 인지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아동들의 머릿속에 정서 경험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지식이 축적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때 정서 경험에 대한 지식이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서와 정서적 경험에 대한 정보의 축적을 의미한다. 연령과 관련하여 아동의 정서 경험에 대한 지식도 증가하는데 이는 정서의 지속시간, 다양한 정서를 구별하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 다양한 정서의 경험을 설명하는 능력, 정서 표현에 대한 문화적 규칙을 습득하는 능력 등이 증가함을 말한다(곽윤정, 1997, 재인용). 국내의 연구(박영애, 최은경, 2001)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취학전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보다 타인관련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이상에서 제시된 가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서 능력의 성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 조절 능력에 있어서 빠른 발달을 보이고 정서 상태에 대한 사고와 인식의 발달도 뛰어났으며(Wierzbicki, 1993), 여아가 남아보다 타인 정서조절 및 표현, 감정이입, 정서지능 전체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백수정, 2002). 또한 노명희와 박상희(2002)의 연구에서는 남아보다 여아가 자기정서인식요인을 제외한 다른 하위요인들, 즉 자기조절요인과 타인인식요인, 타인조절요인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에 발표된 장미선(2005)의 연구에서도 정서 표현과 정서조절에서 여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양하다.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들과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이론, Belsky(1984)의 부모 양육행동의 복합적 요인에 관한 모델의 기본 틀을 적용하여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아동 변인, 부모 변인, 가정환경 변인, 그리고 가정외적 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문혁준, 1998).

Kernberg(1976)는 인간의 정서적 특성은 초기 아동기에 형성되고 그들의 정서적 특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라고 하였으며, Dunn과 Brown(1994)은 아동이 부모로부터 정서표현을 배우면서 정서의 기술적 습득에 있어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Berne(1966)이 정립한 상호교류분석이론에 의하면, 유아의 전인발달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은 부모 자신의 심리적 자세가 교류를 통하여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한 형태로 간주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관련하여 최근에 수행된 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는 아동의 자아개념, 정서지능, 사회적 능력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김경희, 2000; 김형옥, 2001; 이병래, 1997). 즉 부모가 애정-자율적인 양육태도 또는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안현지, 1999), 부모 양육행동 중 온정적이고 애정, 관심과 같은 특성

은 아동의 정서지능(박영애, 최희형, 박인전, 2000)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유형에 따라 아버지의 발달적 지지, 자녀돌보기 및 지도,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과 양육참여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설경옥, 2005).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동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동 자신의 변인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환경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함으로써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서지능이라고 볼 때,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머니의 영향이라고 여겨지며,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자신 또는 타인에게 향하는 심리적 자세는 양육태도로 표출되어 자녀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지능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유아의 정서지능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유아의 정서지능은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셋째, 유아의 정서지능은 어머니의 양육참여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넷째, 유아의 정서지능을 예측하는 변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지능과 관계된 요인분석으로 서울시내 5개의 구립어린이집 만 4세, 5세 유아 267명(만4세 131명, 만5세 136명)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 도구는 교사용 정서지능 척도와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및 양육참여도에 관한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1) 정서지능

정서지능 척도는 김경희(1998)가 작성한 것으로, 본 척도는 유아가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보이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에 대한 지각과 이 지각을 표현하는 방식, 더 나아가 감정을 조절하고, 생산적 활동에 정서를 이용할 수 있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백분율(N=267) N(%)
유아의 성별	남	133(49.8)
	여	134(50.2)
자녀의 연령	만4세	131(49.1)
	만5세	136(50.9)
출생순위	외동이 첫째	129(48.4)
	둘째이상	138(51.6)
자녀 수	1	45(16.9)
	2이상	222(83.1)
어머니의 연령	35세 이하	116(43.5)
	36세 이상	151(56.5)
어머니의 교육수준	초대졸 이하	116(43.5)
	대졸 이상	151(56.5)
어머니의 직업유무	무	51(19.1)
	유	216(80.9)
가족형태	핵가족	239(89.5)
	확대가족	28(10.5)
가계월수입	300만원 미만	122(45.8)
	300만원 이상	145(54.2)

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 척도의 50개 문항은 정서지능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는 반대되는 의미의 쌍으로 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에 의해 아동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유아가 자신이나 타인의 정서를 보다 잘 지각하고 표현하며 조절할수록 '5'에 가까우며 그렇지 못할수록 '1'에 가깝게 표시가 되었다.

본 척도의 6개 하위요소와 요인별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자기정서의 이용($\alpha=.83$)',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alpha=.89$)',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alpha=.87$)',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alpha=.83$)', '교사와의 관계($\alpha=.89$)', '또래와의 관계($\alpha=.89$)'이다.

2)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병래(1997)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하위요소, 문항수, Cronbach α 계수는 자기에 대한 심리적 자세에서 자기긍정의 자세 14문항($\alpha=.83$), 자기부정의 자세 14문항($\alpha=.82$), 타인에 대한 심리적 자세는 타인긍정의 자세 14문항($\alpha=.76$), 타인부정의 자세 14문항($\alpha=.73$)이다.

측정도구는 긍정형 문항(자기긍정과 타인긍정의 자세문항)과 부정형 문항(자기부정과 타인부정의 자세문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응답에 대한 점수는 가장 긍정적인 견해로 표시 되었을 때 5점, 가장 부정적인 견해로 표시되었을 때 1점으로 배점하여 점수화 시켰다. 그러므로,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긍정의 자세와 관련된 문항들은 '5'에 표시했을 때 가

장 긍정의 자세를 나타내지만, 부정의 심리적 자세와 관련한 문항들은 역으로 '1'에 표시했을 때 가장 긍정의 자세를 나타내게 된다. 전체점수는 자기부정의 자세와 타인부정의 자세를 역채점하여 산출하였다.

3) 어머니 양육참여도

어머니의 양육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영환, 조복희, 이진숙(1999)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생산적 어머니 노릇' 연구에서 양육참여요인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참여 검사지의 하위요인과 Cronbach α 계수는 발달적 지지 11문항($\alpha=.83$), 자녀 돌보기 및 지도 9문항($\alpha=.78$),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6문항($\alpha=.74$)이다. 각 문항은 1점에서 4점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각 유아에 대한 정서지능 평정척도는 담임교사가 작성하였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및 양육참여도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배포된 질문지는 294부로 직접배부를 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는 286부로 이중에서 부실한 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67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및 양육참여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t-test, Pearson's의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질문지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로 구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정서지능의 일반적 경향

1)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유아의 성별에 따라 정서지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를 살펴보면 유아의 정서지능은 성별에 따라 하위영역인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과 또래와의 관계의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정서의 이용($t=-3.92, p<.001$),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t=-3.78, p<.01$),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t=-3.31, p<.01$), 교사와의 관계($t=-3.91, p<.001$), 그리고 정서지능 전체($t=-3.99, p<.001$)에서 높게 나타났다.

2)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유아의 연령에 따른 정서지능은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을 포함한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기정서의 이용,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또래와의 관계, 그리고 전체의 경우 유의수준 $p<.001$ 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교사와의 관계는 유의수준 $p<.01$ 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5세가 4세 보다 유아의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났다.

<표 2>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구 분	유아의 성별	사 례 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유아의 정서지능	자기정서의 이용	남	133	3.55	.88	-3.92***
		여	134	3.95	.82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남	133	3.66	.70	-3.78**
		여	134	3.99	.71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남	133	3.96	.71	-1.82
		여	134	4.12	.72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남	133	3.53	.81	-3.31**
		여	134	3.83	.70	
	교사와의 관계	남	133	3.65	.88	-3.91***
		여	134	4.08	.89	
	또래와의 관계	남	133	3.79	.82	-1.55
		여	134	3.92	.85	
	전 체	남	133	3.79	.82	-3.99***
		여	134	3.92	.85	

** $p<.01$, *** $p<.001$

〈표 3〉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구 분		유아의 연령	사 례 수	평 균	표준편차	t값
유아의 정서지능	자기정서의 이용	만4세	131	3.54	.92	-4.04***
		만5세	136	3.96	.77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만4세	131	3.69	.74	-2.94**
		만5세	136	3.95	.68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만4세	131	3.86	.80	-4.27***
		만5세	136	4.22	.58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만4세	131	3.53	.79	-3.22**
만5세		136	3.83	.72		
교사와의 관계	만4세	131	3.69	1.00	-3.24**	
	만5세	136	4.04	.78		
또래와의 관계	만4세	131	3.66	.90	-3.77***	
	만5세	136	4.04	.72		
전 체		만4세	131	3.65	.65	-4.65***
		만5세	136	4.00	.57	

p<.01, *p<.001

2.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및 양육 참여도와의 관계

1)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의 관계

〈표 4〉는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이다. 유아의 정서지능 중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에서는 어머니의 자기긍정의 자세와 정적인 상관관계($r=.14, p<.05$)가 나타났으며,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는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중 자기부정의 자세와 정적인

상관($r=.15, p<.05$)이 있었다. 그 외의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은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지 않았다.

2) 유아의 정서지능과 양육참여도와의 관계

유아의 정서지능과 양육참여도의 상관관계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의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중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에서만 어머니 양육참여도의 하위영역인 발달적 지지($r=.17, p<.01$)와 자녀돌보기 및 지도($r=.16, p<.01$),

〈표 4〉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의 관계

유아의 정서지능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자기긍정의 자세	자기부정의 자세	타인긍정의 자세	타인부정의 자세	전 체
자기정서의 이용		.02	.02	.01	-.04	.01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04	.09	.03	-.01	-.03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14*	-.11	.03	-.02	.10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12	.15*	-.05	.02	-.11
교사와의 관계		.02	-.01	.04	.01	.02
또래와의 관계		.06	-.04	.06	-.06	.07
전 체		.02	.02	.02	-.02	.01

*p<.05

〈표 5〉 유아의 정서지능과 양육참여도와의 관계

유아의 정서지능	양육참여도	발달적 지지	자녀돌보기 및 지도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전 체
자기정서의 이용		.07	.05	.06	.07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17**	.16**	.11	.17**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12	.08	.09	.11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04	.05	.03	.05
교사와의 관계		.08	.06	.07	.08
또래와의 관계		.04	.00	.06	.04
전 체		.11	.09	.09	.11

**p<.01

양육참여도 전체($r=.17,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3.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력

유아의 정서지능에 영향력이 큰 변인들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유아 및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 변인,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및 양육참여도를 단계별 투입하여 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자기정서의 이용에 대한 영향력

유아의 정서지능 중에 자기정서의 이용에 대한 영향력이 큰 변인들과 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1단계에서 유아의 성별($\beta=.19, p<.001$) 및 연령($\beta=.23, p<.001$),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beta=.19, p<.01$)이 유아의 정서지능 중 자기정서의 이용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연령이 많을수록, 남아보다 여아가, 그리고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정서 이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 투입된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는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으며, 3단계에 투입된 어머니의 양육참여도 역시 유아의 자기정서 이용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종합해 보면, 유아의 자기정서 이용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유아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었으며, 단계별 설명력은 14.1%, 15.2%, 15.6%이었다.

2)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에 대한 영향력

유아의 정서지능 중에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에 대한 영향력이 큰 변인들과 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1단계에서 유아의 연령($\beta=.26, p<.001$)만이 유아의 정서지능 중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연령이 많을수록 유아의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이 높았다. 2단계에 추가로 투입된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중 자기 긍정의 자세($\beta=.23, p<.01$)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가 투입된 이후에도 1단계에서 유아의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에 영향을 미쳤던 유아의 연령($\beta=.27, p<.001$)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력 있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기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어머니일수록 그 자녀의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참여도의 투입은 유아의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종합해 보면, 유아의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유아의 연령과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중 자기긍정의 자세였으며, 그 단계별 설명력은 10.2%, 13.6%, 14%이었다.

<표 6> 자기정서의 이용에 대한 배경 변인 및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양육참여도의 회귀분석

독립 변인		자기정서의 이용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배경 변인	성별 ¹	.34	.19***	.35	.20***	.35	.20***
	연령	.39	.23***	.42	.24***	.43	.25***
	출생순위 ²	-.06	-.03	-.04	-.02	-.02	-.01
	모의 연령	-.20	-.11	-.19	-.11	-.21	-.12
	모의 학력	.33	.19**	.32	.18**	.30	.17*
	모의 취업유무 ³	-.06	-.03	-.07	-.03	-.06	-.03
	자녀 수	.09	.04	.07	.03	.08	.04
	월수입	-.14	-.08	-.17	-.10	-.18	-.10
심리적 자세	가족형태 ⁴	.04	.01	.02	.01	.01	.00
	자기긍정의 자세			.19	.09	.14	.07
	자기부정의 자세			.21	.11	.22	.12
	타인긍정의 자세			-.07	-.03	-.07	-.03
양육참여도	타인부정의 자세			-.20	-.09	-.20	-.09
	발달적 지지					.13	.07
	자녀돌보기 및 지도					-.08	-.04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05	.03
상수		1.46		1.04		.83	
F값		4.70***		3.49***		2.89***	
R ²		.141		.152		.156	
R ² 변화량		.141***		.011		.004	

* $p<.05$, ** $p<.01$, *** $p<.001$

1: 남아, 2: 여아; 2: 외동 및 첫째, 2: 둘째이상; 3: 무, 2: 유; 4: 핵가족, 2: 확대가족

〈표 7〉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에 대한 배경 변인 및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양육참여도의 회귀분석

독립 변인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배경 변인	성별 ¹	.11	.08	.12	.08	.12	.08
	연령	.38	.26***	.39	.27***	.39	.28***
	출생순위 ²	.01	.01	.02	.02	.04	.03
	모의 연령	-.14	-.10	-.14	-.10	-.15	-.10
	모의 학력	.18	.12	.15	.10	.14	.09
	모의 취업유무 ³	-.08	-.04	-.11	-.06	-.10	-.06
	자녀 수	-.17	-.09	-.20	-.10	-.19	-.10
	월수입	-.05	-.04	-.09	-.06	-.09	-.07
심리적 자세	가족형태 ⁴	-.01	-.01	-.04	-.02	-.04	-.02
	자기긍정의 자세			.38	.23**	.34	.21*
	자기부정의 자세			.00	.00	.00	.00
	타인긍정의 자세			-.22	-.11	-.23	-.11
양육참여도	타인부정의 자세			-.02	-.01	-.02	-.01
	발달적 지지					.09	.06
	자녀돌보기 및 지도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02 .00	.01 .00
상수		2.66		2.36		2.12	
F값		3.23***		3.07***		2.55**	
R ²		.102		.136		.140	
R ² 변화량		.102***		.035*		.004	

*p<.05, **p<.01, ***p<.001

¹: 남아, ²: 여아; ²: 외동아 및 첫째, 2: 둘째이상; ³1: 무, 2: 유; ⁴1: 핵가족, 2: 확대가족

3)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에 대한 영향력

유아의 정서지능 중에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변인들과 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1단계에서 유아의 성별($\beta=.16, p<.01$)과 연령($\beta=.18, p<.01$), 그리고 가정의 월수입($\beta=-.20, p<.01$)이 유아의 정서지능 중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남아보다 여아일 때, 연령이 많을수록, 가정의 월수입이 적을수록 유아의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가 높았다. 2단계에 추가로 투입된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중 자기부정의 자세($\beta=.21, p<.01$)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가 투입된 이후에도 1단계에서 유아의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에 영향을 미쳤던 유아의 성별($\beta=.16, p<.01$), 연령($\beta=.21, p<.001$), 그리고 가정의 월수입($\beta=-.21, p<.01$)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영향력 있는 주요 변인이었다. 즉, 어머니가 자기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어머니 일수록 자녀의 감정 조절 및 충동억제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3단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참여도의 투입은 유아의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종합해 보면, 유아의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유아 및 어머니의 배경 변인들 중 유아의 성별과 연령 및 가정의 월수입,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중에서 자기부정의 자세였으며, 그 단계별 설명력은

12.0%, 14.9%, 16.2%이었다.

4)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에 대한 영향력

유아의 정서지능 중에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에 대한 영향력이 큰 변인들과 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1단계에서 유아의 성별($\beta=.20, p<.001$) 및 연령($\beta=.16, p<.01$)이 유아의 정서지능 중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보다 여아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유아의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가 높았다. 2단계에 투입된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는 유아의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으며, 3단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참여도가 투입된 이후에도 1단계에서 유아의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에 영향을 미쳤던 유아의 성별($\beta=.20, p<.001$) 및 연령($\beta=.19, p<.01$)은 여전히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다. 어머니의 양육참여도 중에서는 발달적 지지($\beta=.20, p<.05$)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양육참여도 중 발달적 지지가 높을수록 유아의 타인 정서의 인식과 배려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유아의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유아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참여도 중 발달적 지지였으며, 그 단계별 설명력은 10.8%, 12.5%, 16.1%이었다.

〈표 8〉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에 대한 배경 변인 및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양육참여도의 회귀분석

독립 변인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배경 변인	성 별 ¹	.25	.16**	.24	.16**	.24	.16**
	연 령	.28	.18**	.32	.21***	.33	.21***
	출생순위 ²	.04	.03	.05	.04	.08	.06
	모의 연령	-.12	-.08	-.12	-.08	-.15	-.10
	모의 학력	.10	.06	.09	.06	.06	.04
	모의 취업유무 ³	-.15	-.08	-.12	-.06	-.10	-.05
	자 녀 수	.04	.02	.02	.01	.05	.02
	월 수 입	-.31	-.20**	-.32	-.21**	-.33	-.22**
가족형태 ⁴	-.10	-.04	-.12	-.05	-.13	-.05	
심리적 자세	자기긍정의 자세			.09	.05	.02	.01
	자기부정의 자세			.36	.21**	.36	.22**
	타인긍정의 자세			-.10	-.05	-.10	-.04
	타인부정의 자세			-.24	-.13	-.24	-.13
양육참여도	발달적 지지					.22	.13
	자녀돌보기 및 지도					-.11	-.05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06	.04
상 수		2.81		2.44		2.09	
F값		3.88***		3.41***		3.03***	
R ²		.120		.149		.162	
R ² 변화량		.120***		.029		.013	

p<.01, *p<.001

¹: 남아, ²: 여아; ²¹: 외동이 및 첫째, ²: 둘째이상; ³¹: 무, ²: 유; ⁴¹: 핵가족, ²: 확대가족

〈표 9〉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에 대한 배경 변인 및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양육참여도의 회귀분석

독립 변인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배경 변인	성 별 ¹	.29	.20***	.29	.20***	.29	.20***
	연 령	.24	.16**	.26	.18**	.27	.19**
	출생순위 ²	.02	.01	.03	.02	.07	.05
	모의 연령	-.08	-.06	-.08	-.05	-.11	-.08
	모의 학력	.12	.08	.12	.08	.08	.06
	모의 취업유무 ³	-.21	-.11	-.20	-.11	-.16	-.09
	자 녀 수	-.13	-.07	-.14	-.07	-.12	-.06
	월 수 입	-.14	-.10	-.17	-.12	-.18	-.13
가족형태 ⁴	-.08	-.04	-.09	-.04	-.09	-.04	
심리적 자세	자기긍정의 자세			.06	.04	-.05	-.03
	자기부정의 자세			.22	.14	.22	.14
	타인긍정의 자세			.07	.04	.05	.02
	타인부정의 자세			-.17	-.10	-.17	-.10
양육참여도	발달적 지지					.31	.20*
	자녀돌보기 및 지도					.01	.01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02	.02
상 수		3.16		2.46		1.76	
F값		3.45***		2.77**		2.99***	
R ²		.108		.125		.161	
R ² 변화량		.108***		.017		.036*	

*p<.05 **p<.01 ***p<.001

¹: 남아, ²: 여아; ²¹: 외동이 및 첫째, ²: 둘째이상; ³¹: 무, ²: 유; ⁴¹: 핵가족, ²: 확대가족

〈표 10〉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배경 변인 및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양육참여도의 회귀분석

독립 변인		또래와의 관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배경 변인	성별 ¹	.08	.05	.09	.06	.10	.06
	연령	.40	.24***	.42	.25***	.43	.26***
	출생순위 ²	.11	.07	.12	.07	.15	.09
	모의 연령	-.11	-.07	-.11	-.06	-.13	-.08
	모의 학력	.01	.00	.00	.00	-.03	-.02
	모의 취업유무 ³	-.05	-.02	-.07	-.03	-.07	-.03
	자녀 수	-.24	-.11	-.26	-.12	-.24	-.11
	월수입	-.07	-.04	-.11	-.07	-.12	-.07
가족형태 ⁴	.00	.00	-.02	-.01	-.03	-.01	
심리적 자세	자기긍정의 자세			.19	.10	.15	.08
	자기부정의 자세			.09	.05	.11	.06
	타인긍정의 자세			-.02	-.01	.01	.01
	타인부정의 자세			-.15	-.08	-.15	-.08
양육참여도	발달적 지지				.13	.18	.10
	자녀돌보기 및 지도				-.05	-.25	-.12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04	.08	.05
상수		2.55		2.16		2.18	
F값		2.19*		1.77*		1.57	
R ²		.071		.083		.091	
R ² 변화량		.071*		.012		.008	

*p<.05 ***p<.001

¹1: 남아, 2: 여아; ²1: 외동이 및 첫째, 2: 둘째이상; ³1: 무, 2: 유; ⁴1: 핵가족, 2: 확대가족

〈표 11〉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배경 변인 및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양육참여도의 회귀분석

독립 변인		교사와의 관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배경 변인	성별 ¹	.40	.22***	.41	.23***	.41	.23***
	연령	.34	.19**	.34	.19**	.34	.19**
	출생순위 ²	-.01	-.01	-.01	.00	.01	.01
	모의 연령	-.11	-.06	-.11	-.06	-.13	-.07
	모의 학력	.10	.06	.11	.06	.09	.05
	모의 취업유무 ³	-.14	-.06	-.14	-.06	-.13	-.06
	자녀 수	-.27	-.11	-.27	-.11	-.25	-.10
	월수입	.07	.04	.06	.03	.04	.03
가족형태 ⁴	-.10	-.03	-.09	-.03	-.10	-.03	
심리적 자세	자기긍정의 자세			.05	.02	.00	.00
	자기부정의 자세			.00	.00	.00	.00
	타인긍정의 자세			.14	.06	.15	.06
	타인부정의 자세			.04	.02	.05	.02
양육참여도	발달적 지지					.11	.05
	자녀돌보기 및 지도					-.06	-.03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07	.04
상수		2.49		1.70		1.48	
F값		3.61***		2.56**		2.13**	
R ²		.112		.116		.120	
R ² 변화량		.112***		.004		.004	

p<.01 *p<.001

¹1: 남아, 2: 여아; ²1: 외동이 및 첫째, 2: 둘째이상; ³1: 무, 2: 유; ⁴1: 핵가족, 2: 확대가족

5)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영향력

유아의 정서지능 중에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영향력이 큰 변인들과 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1단계에서 유아의 연령($\beta=.24, p<.001$)만이 유아의 정서지능 중 또래와의 관계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연령이 많을수록 유아의 또래와의 관계가 좋았다. 2단계에 투입된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는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으며, 3단계에 투입된 어머니의 양육참여도 역시 유아의 또래와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종합해 보면, 유아의 또래와의 관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유아의 연령이었으며, 단계별 설명력은 7.1%, 8.3%, 9.1%이었다.

6)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영향력

유아의 정서지능 중에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영향력이 큰 변인들과 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1단계에서 유아의 성별($\beta=.22, p<.001$) 및 연령($\beta=.19, p<.01$)이 유아의 정서지능 중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보다 여아일 때, 연령이 많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았다. 2단계에 투입된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는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으며, 3단계에 투입된 어머니의 양육참여도 역시 유아의 교사와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종합해 보면, 유아의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유아의 성별과 연령이었으며, 단계별 설명력은 11.2%, 11.6%, 12%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아동과 그들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유아 및 부모 변인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별에 따라 정서지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유아의 정서지능은 성별에 따라 하위영역인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과 또래와의 관계의 경우를 제외한 자기정서의 이용,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정서지능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서지능의 발달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한 연구(김경희, 김경희, 2000; 백수정, 2002; 장미선, 2005; Wierzbicki, 1993; Mayer & Salovey, 1996)와 일치한다. 노명희와 박상희(2002)는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

이를 전통적으로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감정이입과 감정조절을 기대하는 사회적 관습의 영향이라고 보았으며, 이주리(2002)는 정서지능에서 여아의 정서발달을 촉진시키는 성별 사회화가 내면화 되었다고 보았다. 이혜련과 최보가(2005)는 이러한 결과를 여아에게는 남아보다 타인의 감정을 상하지 않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사회화하고, 남아에게는 슬픔의 표현을 승인하지 않고 여아에게는 분노의 표현을 승인하지 않는 등 부모들이 아동의 정서적 행동을 사회화할 때 남아와 여아에게 다른 전략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유아의 연령에 따른 정서지능은 자기정서의 이용,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또래와의 관계,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교사와의 관계 등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전체에서 만5세 아동이 만4세 아동에 비해 모든 하위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자율적이며 성취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동기화하고,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배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 특히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높으며,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보다 원만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경희와 김경희(2000)의 연구와 일치하며,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정서 조절 능력도 발달한다는 선행연구(배기조, 2001; 이혜련, 최보가, 2005; Mayer & Salovey, 1996)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셋째,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유아의 정서지능 중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에서는 어머니의 자기긍정의 자세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는 어머니의 자기부정의 자세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자기긍정의 자세는 발달적 지지, 자녀돌보기 및 지도,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그리고 전체 양육참여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자기부정의 자세는 발달적 지지, 전체 양육참여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타인긍정의 자세는 발달적 지지, 자녀돌보기 및 지도,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전체 양육참여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타인부정의 자세는 발달적 지지,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전체 양육참여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자기긍정과 타인긍정의 심리적 자세는 긍정적인 양육참여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어머니

의 정서수용태도에 따라서 유아의 정서이해와 정서조절에 차이가 나타난 이해련(2005)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며,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가 긍정형인 집단의 유아들이 부정형 집단의 유아들보다 정서지능이 높았던 김영란(2004)의 연구와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가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수준이 높았던 김형옥(2001)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수경(2002)의 연구와 부정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적 표현이나 낮은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Gottman & Katz, 1989; 이해련 외 1인 재인용, 2005)을 지지한다. 한편, 양육참여도에서는 유아의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중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에서만 어머니 양육참여도의 하위영역인 발달적 지지, 자녀돌보기 및 지도, 양육참여도 전체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주 양육자이자 유아의 가장 가까운 환경인 어머니가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녀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자녀의 친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귄 기회를 만들어 주는 등 자녀의 발달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유아의 타인정서를 인식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유아의 정서지능 중 자기정서 이용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유아의 자기정서 이용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유아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보다 여아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정서 이용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서표현과 정서활용이 높다고 보고한 강민수(2001)와 이주리(2002)의 연구와 일치하며, 교육정도가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의 정서적 발달을 우선적인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는 이원영(1983)의 연구결과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유아의 정서지능 중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에 대한 영향력에서 부모의 월수입이 적을수록 유아의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가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에서도 자기 부정적인 자세를 취할수록 자녀의 감정 조절 및 충동억제가 높게 나타나, 부모의 월수입과 어머니의 자기 부정의 자세가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인식, 정서조절을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한 이주리(2002)의 연구와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정적일수록 즉, 냉정하고 무반응적이고 제한설정이 부족할수록 아동들이 분노를 많이 표현하며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한 Gottman과 Katz(1989)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것으로 추후 반복 연구가 반드시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의 대상이 중산층 가정이고 월수입이 낮다는 기준도 여타의 다른 지역보

다는 높은 수준이어서 적정 수준의 가정 형편이 유아들의 감정 조절 및 충동억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자기 부정적인 자세가 유아의 감정 조절 및 충동억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 교육 및 치열한 경쟁사회에 대처하는 중산층의 상대적인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자기 부정적인 자세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자세가 오히려 유아의 감정 조절 및 충동억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다섯째, 유아의 정서지능 중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에서는 유아의 성별과 연령이,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참여도 중 발달적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보다 여아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발달적 지지가 높을수록 유아의 타인 정서의 인식과 배려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역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김경희(2000)의 연구와 일치하며, 타인의 관점에서 사건을 정확히 해석하는 능력은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발달한다고 주장한 Gneep(1986)의 보고와도 일치한다.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성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유아의 연령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즉 남아보다 여아일 때, 연령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다는 것이다. 유아의 정서지능 중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영향력에서는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나 양육참여도는 유아의 또래와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의 중산층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의 구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가 중산층에서 보여주는 자녀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는 특징적인 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어 일반화에 무리가 있다.

둘째, 유아의 정서지능에 있어 1명의 담임교사가 반 전체의 유아의 정서지능을 평정함에 따라 평정에 대한 부담감과 피로로 인한 객관적인 평정의 어려움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 평정에 있어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응답자의 실제 행동보다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응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들만 다루는데 머물렀으나 아버지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양육참여도나 양육태도를 어머니와 비교 연구함으로써 유아의 정서지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양육태도 및 출생순위, 가정의 월수입, 가족형태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던 다른 선행연구와 달리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중산층 지역의 자녀양육에 대한 특성을 볼 수 있었던 점과 유아의 정서지능에 있어 유아 개인의 변인 및 유아를 둘러싼 환경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는 차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 참고문헌

강민수(2001).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지능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광영정(1997). 정서지능의 발달 경향성과 구인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희(1996). 정서지능의 의미와 중요성. 1996년도 유아교육 학술대회. 성숙한 감성 교육의 방향모색.(pp. 31-38). 한국어린이육영회.
 김경희(1998). 교사용 유아정서 지능 평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경희, 김경희(2000). 유아 정서지능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4), 21-34.
 김영란(2004).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의 관계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형옥, 안선희(2001).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9), 15-25.
 노명희, 박상희(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9(3), 107-127.
 문혁준(1998).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1), 91-101.
 박영애, 최은경(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인성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21-134.
 박영애, 최희영, 박인진(2000).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차이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3(2), 71-88.
 배기조(2001). 취학전 아동의 개인 및 가족적 특성이 마음의 이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수정(2002). 부모 화합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및 놀이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설경옥(2005).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현지(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지능의 관계 연구. 서

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수경(2002).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병래(1997).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자, 이종숙, 신은수(1999). 교사 평정에 의한 유아용 정서지능 평가도구 개발 연구. 인간발달연구, 6(2), 121-145.
 이영환, 조복희, 이진숙(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인 아버지 노릇 척도개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2), 79-89.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주리(2002). 아동의 정서지능과 관련 변인들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65-78.
 이혜련, 최보가(2005). 유아의 개인 및 부모특성과 정서이해와 정서조절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5), 1-14.
 장미선(2005). 아동의 정서지능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9, 83-96.
 Berne, E. (1966). *Transactional analysis in psychotherapy*. NY: Grove Press.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Dunn, J., & Brown, J. (1994). Affective expression in the family,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and their interaction with 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137.
 Gardner, H. (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 New York: Basic Books.
 Gneep, J., & Hess, D. L. R.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splay rules for expressive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03-108.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s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73-381.
 Hains, A. A., & Ryan, E. B.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cognitive processes among juvenile delinquents and nondelinquents peers. *Child Development*, 54, 1536-1544.

- Hughes, R., Tingle, Jr. B. A., & Sawin, D. B. (1981). Development of empathic understanding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 122-128
- Kendall, P. C., & Wilcox, L. E. (1980).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for impulsivity: Concrete versus conceptual training in non-self-controlled problem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80-91.
- Kernberg, O. (1976). *Object Relations Theory and Clinical Psycho Analysis*. New York: Jason Aronson.
- Mayer, J. D., DiPaolo, M., & Salovey, P. (1980). Perceiving affective content in ambiguous visual stimuli: A compon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 772-781.
- Mayer, J. D., DiPaolo, M., & Salovey, P. (1990). Perceiving the affective content in ambiguous visual stimuli: A compon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772-781.
- Mayer, J. D., & Geher, G. (1996).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identification of emotion. *Intelligence, 22*, 89-113.
- Mayer, J. D., & Salovey, P. (1990). Emotional Intelligence.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0.
- Mayer, J. D., & Salovey, P. (1996).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identification of emotion. *Intelligence, 22*, 245-267.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and D. J.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New York: Basic Books.
- Mischell, W. (1990). Predicting adolescent cognitive and self-regulatory competencies from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78-86.
- Reisenzein (1983). The Schachter theory of emotion Two decades later. *Psychological Bulletin, 94*(2), 239-264.
- Richard, B. A., & Dodge, K. A. (1982). Social maladjustment and problem solving in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2), 226-233.
- Sternberg, R. (1986). *Successful intelligence*. New York: A Plume Book.
- Wierzbicki (1993). Psychological adjustment of adoptees: A meta-analysi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4), 447.

(2005년 10월 29일 접수, 2006년 3월 2일 채택)